

정월 대보름 광주서 세시풍속 재현 당산제 열린다

당산제(堂山祭)는 예로부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지역의 의례다. 당제, 산제라고도 불리는 이 행사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에 지낸다. 전통 농경의 풍습이 남아 있는 마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시풍속의 의미도 담겨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정월 보름을 계기로 광주에서 당산제가 열리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유덕동 덕흥마을 당산제추진위원회와 서구문화원은 오는 17일(오후 3시) 덕흥공원 느티나무(수령 400여년·덕흥동 454번지) 앞에서 당산제를 지낸다고 밝혔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옛 덕흥(德興)마을의 정취와 세시풍속을 재현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계승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유덕동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협의회, 극락초교총동문회가 후원한다.

문헌에 따르면 덕흥마을에 있는 덕산(德山)은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배어 있는 곳이다. 덕산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성을 공격하던 농민군이 관군에 패해 광주와 인근 지역으로 후퇴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산이라고 부르기에 야트막한 이곳은 앞으로는 극락강이 있고 주위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물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근에 공장과 크고 작은 건물이 들어선 탓에 옛 모습은 많이 작은 건물만 들어선 탓에 옛 모습은 많이 작을 것만 같지만 전통 농경마을의 내력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극락강을 앞에 두고 자리한 터라 옛 정취가 남아 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덕흥마을은 원래는 광산군 덕산면에 속

덕흥마을 추진위·서구문화원
17일 덕흥공원서 개최
240여년 전통 이어오다
20년 전 중단 지난해 복원
풍물패길놀이·달집태우기 등

해있었지만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덕흥동이 됐다.

17일 당산제는 수호목인 느티나무 주위에서 열린다. 원래 이곳 주민들은 240여년 전부터 당산제를 지내왔지만 20여년 전부터 제를 지낼 사람들이 없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정월대보름 때 서구문화원이 중심이 돼 덕흥당산제가 복원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갖는다. 이곳 주민들과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당산나무는 마을의 유래는 물론 외경심을 갖게 하는 노거수로 다가온다.

올해 당산제는 식전행사와 의식행사, 본행사, 식후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당산제는 전통과 풍물, 공연 등 문화적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먼저 식전행사는 풍물패길놀이, 공연, 강릉불꽃놀이, 소원지 작성, 개점(소원 적은 종이 붙임)이 펼쳐진다.

이어 의식행사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대석 서구청장, 정순례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유촌, 치평, 평촌, 동천마을 인근 주민들도 참여한다.

본행사인 당산제는 진설, 초헌, 독축, 제



1960년대 덕흥마을의 정겨운 모습. 오른쪽 위에 있는 나무가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지난해 정월 대보름에 진행됐던 덕흥마을 당산제 장면. <덕흥마을 당산제 추진위원회 제공>

배,매울리기, 아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행사는 소원지탑(달집) 태우기, 풍물패공연, 오곡음식 나눔행사가 예정돼 있다.

당산제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마을은 무등산에 올라 바라보면 광주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이다. 도심에 이런 전통문

화를 지닌 마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며 "현재 주민들은 이번 당산제를 위해 팽과리를 배우고 호롱불도 직접 만들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10-3603-4886, 010-6688-14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종옥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출간 기념 북토크

21일 동명동 '책과 생활'

홀로코스트 기념비, 베를린 장벽 추모공원, 지하도서관...

역사를 가장 예술적으로 기억하는 도시 베를린의 기념 조형물 이야기를 담은 백종옥 미술생태연구소장의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도시의 풍경에 스며든 10가지 기념조형물' (한비) 출간 기념 북토크가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책과 생활'에서 열린다.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백종옥 큐레이터가 독일 유학 시절인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베를린의 기념 조형물 10곳과 공공미술에 대한 생각을 풍부



한 사진자료와 함께 담은 책이다. 저자는 베를린의 공공미술을 찾아다니며 작품과 설치 장소의 맥락, 그곳을 찾는 이들과 상호 작용을 관찰하며 기념 조형물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홍익대 회화과와 독일 베를린예술대학을 졸업한 백소장은 귀국 후 10여년간 기획자로 활동했으며 2018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일했다. 무료 행사. 선착순 30명. 문의 070-8639-92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산창작기금 지원 작품 18일~5월 31일 공모

대산문화재단은 역량 있는 신진문인들의 창작기회를 개선하고 한국문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대산창작기금 지원 작품을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미등단 신인 및 등단 10년 이하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5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하며 수혜자들에게는 각 1천만원의 창작기금과 저작권 등 권리가 주어진다.

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및 작품 소개서와 함께 시는 50편 이상, 소설은 장편 1편(또는 장작집 1권 분량), 희곡은 장막극 2편 이상, 평론은 원고지 1장 이상, 아동문학은 동시 50편 이상 또는 동화 원고지 400장 이상(해당 장르 책 1권 분량)의 미발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daesan.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버디이어 멤버 김현국(왼쪽부터), 이병진, 윤세종, 박성희, 이재라

헤비메탈 밴드 세버디이어 23일 쇼케이스

광주에서 활동하는 헤비메탈 밴드 세버디이어(Sever The Ear)가 신보 쇼케이스를 연다.

세버디이어의 두번째 EP앨범 'Agonize' 쇼케이스가 오는 23일 오후 7시 전 남대 후문 '부드러운 직선'에서 열린다. 이재라(기타), 김현국(드럼), 이병진(기타), 박성희(베이스), 윤세종(보컬)으로 구성된 세버디이어는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포스트 하드코어 계열의 록 음악을 내걸고 있다. 지난 2014년 데뷔 앨범 'H-Ear'을 발표한 세버디이어는 2015년 디지털싱글 'Looking At-'을 내고 2016년 새 멤버 윤세종을 영입했다. 이들의 새 앨범은 이달 정식 발매되기

전에 밴드캠프(severtheear.bandcamp.com)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앨범은 타이틀곡 'Ember'를 포함해 'Pain', 'Wall', 'Justice', 'Not Alone' 등 5곡으로 구성됐다. '고뇌'라는 뜻을 지닌 이들의 앨범 'Agonize'는 현 시대에 대한 밴드의 고뇌를 담았다. 녹음과 편집 과정에는 박형두·권선제·최준용씨가 참여했고 임호중 감독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밴드 '더티라군', '몽키피프렛', '석형'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입장료 1만원. 문의 010-7323-05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려말 진각국사 혜심스님 '禪詩' 통해 깨달음 얻는다

<선시>

20일 대흥사서 전시문화포럼
법인 스님·황지우 시인 발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정신문명을 추구하는 열망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선(禪)과 시(詩)는 각기 지향점은 다르지만 '뭔가'를 꿰뚫는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선과 시를 토대로 한 문학포럼(준)이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주지스님 월우)와 한국선시문학포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대흥사 성보박물관에서 제1회 한국선시문학포럼을 개최한다. '마음의 피뢰침: 禪 & 詩, 眞覺慧照의 선시와 오늘의 한국 시문학'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고려 말 강진 월

남사에 주석했던 진각국사 혜심스님의 선시를 연구, 조명하는 자리다. 대한불교조계종 월남사(강진)가 주관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가 후원한다. '한국선시문학포럼'에는 법인 스님과 황지우 시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선시문학포럼은 최근 사자 발굴 조사가 완료된 강진 월남사(주지 법화스님)의 복원을 앞두고 실질적인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진각 혜심의 禪詩('무의자시집')를 통해 '詩적인 것'과 '禪적인 것'이 교차하는 영성 세계 연구를 통해 상실해가는 인간성 회복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포럼에서 조명할 진각 혜심은 화순에서 태어나 1201년 보조 지눌의 문하로 출가해 월남사를 중창해 선종을 떨쳤다. 1210년 스승 지눌이 입적하자 수선사(오늘날

송광사)로 들어가 뒤를 이었다. 이후 단속사 주지(1220년부터)를 지낸 뒤 1234년에 입적했다. 저서로 '문엄송집' 30권, '심요' 1편, '조계진각국사어록' 1권, '무의자시집' 2권 등이 있다.

김경윤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은 대흥사 월우 주지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모두 세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학담(대흥사 스님·불교철학), 박규리(불교문학), 김명인(시인), 최승호(시인), 차창룡(시인·동명스님)이 발제자로 나서고, 고영섭(시인·불교학), 차차석(불교문학), 하응백(문학평론), 권희철(문학평론), 이은봉(시인) 등 시와 불교철학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인,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다. 문의 010-3625-174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진 월남사 터에서는 12~13세기에 축조된 완전한 형태의 유구와 수심 점의 기와 청자 파편이 나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국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조야양복점 서구 상무리6로 6 김대중센터 마루역옆 50년 전통 결혼 예복 및 특수양복 맞춤 전문기능사 디자이너 기술로 몸에 맞게 맞춰드립니다. ☎062-374-7369, 010-7269-736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교원빨간펜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꼬야전통마사지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기 ☎010-9277-2011, 010-4624-845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편) ☎062)251-8400		